

올 광주 중고차 시장 생계형 트럭 '포터2' 최고 인기

불황 영향...경차도 작년보다 12% 늘어 수입차 1276대 팔려...30% 이상 급증

광주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중고차는 '포터2'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중고 경차의 인기도 급증했다.

13일 중고차 전문 사이트 카사랑방(carsrb.co.kr)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광주자동차매매조합의 중고차 판매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총 판매량은 4만9174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만7271건보다 4%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생계형 화물차로 불리는 '포터2'는 이 기간 총 2114대가 판매돼 광주 중고차 판매순위 1위에 올랐다. 포터2는 올해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아 중고차시장의 최고 강자를 차지했다.

'서민의 발'이라고도 불리는 1t 트럭은 적은 양의 화물들을 옮기기에 적합해 이동식 상점 또는 택배·배달업 등 소규모 창업에 용이하다. 이 때문에 조기퇴직, 구직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면서 1t 트럭을 구입해 소자본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게 카사랑방 측의 분석이다.

중고 경차도 총 3588대가 팔리면서 지난해 3204대보다 11.9% 증가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21.5%나 급증, 3년 연속 판매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경차의 인기는 경제적 혜택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차는 취·등록세 면제와 함

께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50% 할인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이 풍성하다. l 당 15~18km의 고연비도 다른 차종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

이와 함께 고연비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고 수입차 판매도 급상승했다.

BMW, 폴크스바겐, 아우디, 벤츠 등을 포함한 수입차는 올해 1~10월 판매대수 1276건을 기록, 지난해(975건)보다 301대나 더 팔리면서 30.8%가 증가했다.

중고 수입차의 인기가 올라간 것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 감가폭이 커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 일반적으로 수입차는 출시 후 3년 정도가 지나면 신차 가격의 절반이 넘는 가격으로 폭 떨어진다. 더불어 경유 엔진을 탑재한 고연비 수입차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신현철 카사랑방 팀장은 "수입차의 경우 브랜드마다 l 당 20km 이상의 높은 연비를 자랑하는 차들이 많아 그 인기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내 최다 15만 VOD 콘텐츠 제공 세계 최초 UHD 전용 채널 서비스 홈이스 유료방송 시장 확대 나서

디지털케이블TV VOD 서비스 전문기업 ㈜홈이스(대표 최정우·사진)가 시청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로 시장 확대에 나섰다.

홈이스는 13일 국내 유료방송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 최다 15만 VOD 콘텐츠 ▲지상파 종료 후 즉시 보기 ▲세계 최초 UHD 전용 채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케이블TV VOD 15만 편 서비스는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서비스를 통해 케이블TV 시청자들은 최선영 화부터 드라마, 애니메이션, 교육 등에 이르는 각종 콘텐츠를 집에서 편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또 유료 콘텐츠뿐 아니라 '뽀로로' '코코몽' '파워레이저 캡틴포스' 등 2만 편의 무료 키즈·애니메이션도 공급한다.

지상파 즉시 보기 서비스도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제공한다. 그동안 시청자들은 본 방송 종료 직후, 다시보기 VOD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케이



블TV 시청자라면 누구나 드라마, 연예 오락 등 지상파 프로그램 방송 종료 후 즉시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 홈이스는 세계 최초로 UHD 전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이미 세계 최초로 UHD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차세대 UHD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외 유수의 콘텐츠업체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다.

최정우 홈이스 대표는 "이번 디지털케이블TV VOD 서비스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유료 방송 시장에서 케이블TV 시청자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케이블TV업계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방송 기술 혁신과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홈이스는 세계 최초로 UHD 전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이미 세계 최초로 UHD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차세대 UHD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외 유수의 콘텐츠업체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다.

최정우 홈이스 대표는 "이번 디지털케이블TV VOD 서비스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유료 방송 시장에서 케이블TV 시청자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케이블TV업계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방송 기술 혁신과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0월 광주·전남 실업자 증가폭 40%대

취업자 비해 10배 이상

10월 광주·전남지역의 취업자보다 실업자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고용률은 57.8%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72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만9000명(4.1%) 증가했으며 실업자는 1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000명(46.6%) 증가했다.

실업률은 2.6%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10월 전남도 고용률은 62.8%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93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000명(0.6%) 증가했으며 실업자는 1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5000명(42.6%) 증가했다.

실업률은 1.7%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콤달콤 제주산 감귤 드세요

13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 새콤달콤한 '자연숙성 천연 감귤'이 선보였다. 제주시 서귀포 보목리산 감귤은 1량에 2980원, 100g에 350원에 판매됐다.

<광주신세계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소방의 날' 장관 표창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난 12일 광주 동부소방서에서 열린 '제5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고객 대피 유도 훈련을 비롯해 비상상황 발생시 직원들의 대응 요령, 전기적 화재 예방 교육, 소방경진대회 개최 등 화재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처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 유통 기업 최초로 인근 전통시장인 대인시장과 '상생협력'에 관



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시장 상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시설 점검을 진행한 부분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는 소방방재청장상 수상

광주테크노파크가 지난 9일 제51회 소방의 날을 맞아 자위소방대 조직 발전 공로로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했다.

소방대 조직 외에도 2001년 건물을 신속한 뒤 예방 점검 등 소방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12년4개월간 무사고

현장을 달성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광주테크노파크는 2008년부터 예방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4차례의 소방안전 교육을 펼치는 등 120여개 입주기업의 제품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기여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대기업 시간제 일자리 확산되나...삼성도 동참

롯데 2000명·신세계 1000명...현대차·LG도 주목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이 6000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해 대기업에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롯데와 신세계 등 유동 대기업들도 최근 시간제 일자리 고용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지금까지 시간제 일자리가 유통업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삼성처럼 제조업체에서 비중 있는 업무까지 맡기는 경우가 다른 그룹들로 확산되면 정부 시책인 고용

률 70% 달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삼성이 만들기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모두 6000명에 이른다. 이는 신입 및 경력사원을 포함한 올해 삼성그룹 채용규모(2만6000여명)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별로는 삼성전자가 2700명으로 가장 많다. 삼성디스플레이도 700명을 뽑고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도 각각 400명을 뽑는다. 시간제 근로자 채용에 제조업체들이 발벗고 나선 것이다.

삼성의 시간제 일자리 도입은 다른 그룹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롯데그룹이 내년 상반기까지 2000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했고, 신세계그룹도 연말까지 10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하는 등 유통업계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다.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집단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연봉뉴스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취득세 인하 전세시장 안정 기여"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가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중개업자 896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취득세 인화로 전세 수요의 일부가 매매로 전환되며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답변한 공인중개사가 73.3%에 달했다.

또 나머지 26.7%는 취득세는 매매 시장에 국한된 것으로 전세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취득세 인하 시 주택거래량 증가폭을 묻는 질문에는 '소폭 증가'가 71.8%로 다수를 차지했고, '큰 영향 없다'는 14.8%, '대폭 증가'는 13.4%로 나타났다. 국회 통과 시 주택시장 활

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묻는 질문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폐지가 85.7%로 가장 많았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6.7%),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4.5%), 개발 부담금 한시 감면(3.1%) 등이 뒤를 이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찬반 견해를 묻는 항목에는 '반대'가 74.0%로 '찬성'(26.0%)을 압도했다. 반대 이유로는 개인 재산권 침해, 시장 왜곡 우려, 임대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꼽혔다. 반면, 찬성 응답자들은 2년이라는 현행 전월세 계약 기간이 너무 짧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산불이 사라지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작은 불씨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태워버립니다.

생녕, 라이터는 두고 가고...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하고... 취사 대신 도시락을 즐기고...
꺼진 불씨도 꼼꼼하게 다시 보고 남의 불씨도 꼭 챙겨주세요.
산불이 사라지면 산림이 살아납니다. 산불이 사라지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 3.0
서부지방산림청이 선도합니다.**